

이덕일의 '역사의 창'



영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을 두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까지 EU 잔류에 노력했음에도 영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는 영국민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큰 흐름의 일부로 보인다.

공화당 주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것이나, 살인 강간법은 죽여도 마땅하다는 초법적 발상의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된 것, 30대 워킹맘인 라지가 로마 시장에 당선된 것도 이런 흐름의 도상으로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여론조사를 거쳐왔던 지난 4·13총선 결과도 이런 흐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지배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다. 이런 불신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학계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자

본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으로 표현되는 세계화는 제3세계의 빈곤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듯싶더니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이 국경을 무력화시키면서 사냥에 나선 결과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중산층은 몰락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거대 자본의 시너가 된 지 오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은 커녕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한 민중들이 무조건 기존 지배 세력과 반대되는 쪽에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1930년대에 있었다. 파시즘의 전 세계적 확산이 그것이었다. 나치의 정식 명칭은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다. 국가라는 우파적 개념과 사회주의, 노동자라는 좌파적 개념이 파시즘에 혼합되었다. 나치는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무솔리니는 한 때 국가적 성향의 사회주의자였다. 무솔리니는 “사회주의 이론은 죽고, 남은 것은 원한뿐이다”라면서 극우파 정당을 결

성해서 군중들이 지지하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아시아에서는, 나쁜 일에는 빠지지 않는 일본이 가담했다. 일본에는 메이지 유신 이외에 1930년대 청년장교들이 주도하던 이른바 소화(昭和) 유신이 있었다. 당시 일본 군부는 황도파(皇道派)와 통제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통제파는 유력 가문 출신들이 많았던 반면 황도파는 한미한 가문들이 많았다.

황도파는 1936년 2월 26일 일왕 '친정'(親政)과 '소화유신'을 기치로 제3대 조선 총독이었던 내대신(內大臣)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등 각료 여러 명을 살해하는 '2·26 사건'을 일으켰다. 이 쿠데타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일본 군부는 정당과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파시스트 일본, 즉 군국주의 일본의 탄생이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파시즘의 준동 배경에도 1929년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가 있었다. 대공황의 타개책을 기존의 지배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국가사회주의, 즉 극우

파시즘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전 세계적 파시스트 체제의 성립 요인이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1940년 9월 27일 '독·이·일 파시스트 삼국동맹'을 체결했고, 전 세계는 전화(戰禍)에 휩싸였다.

지금 상황도 경제 문제와 양극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1930년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상황이 유사하다고 결론까지 같이 하지는 않는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존 지배 세력 거부 현상은 인류사화에 특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 필리핀처럼 초법적 중도 행위로 나타나면 파시즘의 조짐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론가였던 조소앙이 제창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 즉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의 '대외선언'으로 나타난 것은 1931년이다. 삼균주의는 대공황에 대한 임정의 정책 대안이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극화의 해소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길은 새로워 보이지만 대부분 과거에도 없었던 길이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수족구(手足口)병과 개인위생



조 영 국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수족구(手足口)병은 이름과 같이 손과 발, 그리고 입 안에 물집이 잡히면서 열이 나는 질환이다. 이는 장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호흡기에서 나온 균이 공기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아이가 숨 쉴 때 입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의 코와 분비물, 침, 그리고 물집의 진물 또는 대변에 직접 접촉하게 돼 전파된다.

장바이러스는 입으로 들어가서 점막을 통해 혈액을 타고 몸의 곳곳으로 이동한다. 장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하면 수

족구병을 일으키는데 대부분 열감기 정도로 쉽게 지나가기도 한다. 대개 초기에 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다른 열감기를 일으키는 병과 구별이 어렵지만 손, 발, 입이나 사타구니나 엉덩이 등에 물집이 잡히면 수족구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장바이러스가 피부만을 침범하면 수족구병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혈액을 통해서 뇌로 침범하면 뇌수막염, 간으로 들어가면 간염, 심장을 침범하면 심근염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구토나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 등의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5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3~5일 정도의 잠복기 뒤에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열면, 발뒤꿈치나 엄지발가락 옆면에 수포가 나타난다. 이 수포는 둘째가 빨간색 선이 둘러진 쌀알 크기에서 팔알 크기의 타원형으로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다. 이 수포는 2~3일 지나면서 흡

수돼 수 일만에 없어지며 흉터가 남지 않는다.

문제는 입속의 수포로, 생긴 후 단시간에 터지므로 보통은 빨간색 선이 둘러진 지름 5mm정도의 껍양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인해 통증이 있어 밥은 물론 마시는 것도 어려워 침을 삼키지 못해 흘리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물도 못 먹는 상태가 오래된다면 탈수의 위험도 있다. 발열은 보통 미열이나 환자의 20%가량은 38도 전후의 열이 2일 정도 지속된다. 대부분 환자들은 10일 이내에 회복된다.

병의 경과를 만족하기 위해 특별한 치료는 없지만 입 안이 험하면 잘 먹을 수 없으므로 미음이나 죽 등 삼키기 편한 음식을 주고 뜨거운 음식보다는 약간 시원하게 해서 주는 것이 낫다. 시원한 과일이나 채소가 도움이 되며, 이것도 못 먹게 되면 탈수를 막기 위해 시원한 물을 주고 만약 물도 먹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어들어 탈수가 의심되면, 수액치료를 위해 단기간

입원을 해야 한다. 손, 발 등에 잡힌 물집을 터트리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수족구병이 유행할 때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을 끓여먹고 외출 후를 포함한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모유 수유가 장바이러스 감염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놀이방이나 유아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환자에게 집에서 쉬도록 권유해 격리를 시키는 것이 전파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장바이러스가 7여종에 달해 현재까지 수족구병의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수족구병은 열을 동반한 손, 발, 입의 수포성 질환으로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탈수가 없다면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같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환으로 손씻기를 포함한 개인위생이 매우 중요하다.

기고

산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



장 소 환
고령정보산업학교 사회정책지원계장

최근 법무부 고령정보산업학교 학생과 직원, 어머니 멘토 등 23명이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다. 산행을 하면 좋은 점이 참 많다.

첫째,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산행하면서 겪게 되는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 힘든 일을 같이했다는 점도 서로 친해지게 할 수 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고, 늦게 가는 사람은 앞선 사람 속도에 맞추는 과정에서 양보·신뢰를 쌓을 수 있다.

두번째 좋은 점은 나무들이 내뿜는 물질 중 '피톤치드'라는 것이 있는데, 병원균, 곰팡이, 해충 등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이다. 산행에서 자연스레 이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좋아진다. 실제 산행을 마친 다음날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

는 혈액 속 '베타엔도르핀'의 양을 측정하면 평소보다 10~20%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처럼 아이들과 바람에 운해가 넘나드는 지리산 자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녹음을 만끽했다. 여름 '땀방'은 어디 갔을까. 산 속은 덥기보다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시원했다. 어느덧 대피소에 도착해 처음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지리산 능선 초입인저우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다가는 그런 곳이다. 어머니 멘토들은 아이들과 간식을 나눠먹으면서 '힘들지?'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

사람들이 쉽게 정이 들 수 있는 것들 함께 같은 길을 걷고, 호흡하며 구름길을 휘리는 일이 아닐까? 한 어머니 멘토가 힘에 부쳐 노고단 대피소에서 산행을 포기하려하자 한 아이가 "어머니 저와 함께 가요"라며 손을 내민다. 그러자 포기하려던 그는 아들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노고단 단담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돌탑에 도착하니 그간 힘들었던 여정을 잊은 어머니 멘토들이 행복함 비명을 지른다. 지리산 해설사로부터 황폐해진 노고단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종 목적지 노고단 정상에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정상에 올랐다. 구름이 넘나드는 노고단에서는 화염사와 능선 자락이 내려다보인다. 저

말리 있을 천왕봉과 계곡들은 운해에 가려졌다. 아이들은 짙은 지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비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난, '신선', 또는 천진난만한 '어린이' 같다.

하산 길에 구례 화엄사 인근에서 늦은 점심을 했다. 아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밥을 세 그릇이나 먹는 학생도 있었다. 식당 주인한테 "우리 학생들이 3일을 굶었다"고 농담을 건넸는데,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그저 고맙다"고 대답했다. 식당주인이 아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업소에서 천연염색 체험을 했다. 하얀 천을 행황색씩 자신들이 직접 물들이고, 그것을 건조대에 널면서 다들 신기하다는 표정이다.

건조되길 기다리며 지리산 반달가슴곰 사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종복원 기술원을 찾아갔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중에는 자연에 돌아가지 못한 채 다시 사육장으로 돌아오거나, 먹을 것이 없어 민가로 내려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곰들이 있다. 혹은 사냥꾼이 쳐놓은 울무에 걸려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앞으로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50마리까지 사육, 방생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마지막 체험학습으로 '나무의 머그컵

꾸미기'를 했다. 자신의 마음을 컵에 새기는 체험으로, 이날은 꽃과 이름, 소망을 새겨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질 없는 욕심을 청소하듯 지리산남부사업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봉사활동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 학생은 "산행이 힘들었지만 어머니 멘토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만약, 학생들끼리만 산을 올랐다고 하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부모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다. 자연스레 타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너무 서툰 게 사실이다. 물론 한 차례 지리산 산행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이들은 힘든 산행에서 인내력을 기르고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 고령정보산업학교는 다양한 분야 체험학습과 봉사활동,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재비행을 방지할 생각이다. 지리산국립공원과 협의해 올해 3~4차례 더 산행을 할 계획이다. 멘토링 등 민간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社說

대표 사퇴한 국민의당, 초심 살려 반전 계기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전정배 상임공동대표가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다. 사태에 연루된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기소 결정 전에 두 공동대표가 전직 퇴진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면서 대표직을 내려지만 그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 전가와 회피에 급급하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가 결단을 내린 것은 창당 당시 내걸었던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호남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38석을 획득함으로써 국경력 제3당이 된 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뜻이 강했다는 것이다.

물론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 국민의당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 또한 크

다. 힘 있는 캐스팅보터로 야권의 국회 의장직 확보에 기여한 가운데 본격 전개될 '협치'를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에 처하게 됨으로써 정치 지형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당은 새누리·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당분간 혼란스럽더라도 내부 진흥 재정비를 통해 정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제3당의 입지를 다시 다지는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리베이트 같은 각종 비위를 씩부더 자르고, 진인칙의 국회직 채용과 보좌진 월급 상납 등 국회의원의 '갑질' 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부다. 이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 발굴과 실천에 힘써 정치 선진화를 꾀하는 '새정치'에 전력한다면 머잖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 결코 무리한 요구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28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인상안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조치다. 늘 그랬듯이 올해도 법정 임의의 기준을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4일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아 논의를 여길 예정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니 관심이 식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정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송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인상하는 조치들을 취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액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아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달 126만 원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며 하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경영자총연합회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들이 항상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물론 당장 시급 1만 원 인상을 가능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극우 보수의 아이콘' '트러블 메이커' '보은 인사' '최장수 보훈처장' 이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붙는 여러 타이틀이다.

박 처장은 2011년 2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5년5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몇 개월 만에 경질되는 장·차관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이미 최장수 보훈처장 기록을 세웠고 잦은 극우 보수 행보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도 경질되지 않는 배경을 놓고 보

박승춘 리스크

는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중 사람들과는 '박승춘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악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국회가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3년째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18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고, 광주지방보훈처장이 하던 5·18기념식의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기념일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얼마 전에는 5·18

당시 잔인하게 유행 진압한 11공수특전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등 광주 시민을 우롱하기도 했다.

박승춘은 소신을 내세우며 극우 보수 행각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출세욕의 발로라는 지적이 많다. 2004년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을 때는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군사기밀인 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가 문제가 되자 자진 전역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안보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보수정권 재창출에 기여했다.

박승춘의 안하무인 행보는 20대 국회가 출범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3일 야당 국회의원 166명 전원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28일 열린 정부위에서는 '김일성 부모에게 서훈 검토도 가능하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승춘을 보고 있노라면 현 정부의 불통 정치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소통하지 않은 소신은 불통으로 비쳐지 쉽다. 박승춘의 이런 행보가 현 정부의 리스크임에는 분명하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